



2022 tBernard-

2대리구 효목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2. 06. 19. (다해) 제2326호

제1독서 창세 14,18-20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11-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
 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서재성당 주임 | 이압돈 압돈 신부



해마다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이 되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이 신비를 더 많은 분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주일로 옮겨 지내고 있어, 삼위일체와 성체성사의 두 신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잘 알아듣게 해줍니다. 교회는 성령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를 마치고 두 번째 연중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신비를 기억하게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이고,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사이니, 풀어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핵심을 잘 드러냅니다. 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기념하는 오늘은 그것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출발했음을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하시며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어 줌으로써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성체 성사이며 당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단순히 미사를 드리며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넘어 너희도 그렇게 살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사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여 그분처럼 내어 주는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황량한 곳이어서 그 많은 군중을 살게 하려면 열른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게 해야 한다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살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감사와 축복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군중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음식일지라도 감사드리는 것과 축복(benedictio), 곧 좋게(bene) 말하는(dictio) 것으로 시작하여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곧 성체성사와 떨어져 있는 때는 그 삶을 흉내 내어 보지만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평생 면역억제제라는 것을 먹어야 한답니다. 세례로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또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성체성사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관동**



보시니 좋았다

지구는 돌아야 한다

교구 문화홍보국

공기가 돌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사람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순환의 문제입니다. 자연의 순환이야말로 이 지구에 생명의 피를 돌게 하는 확실한 처방일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경제 체제는 자원을 채취(take)하여 제품을 생산(make)하고 소비(consume)한 후에는 미련 없이 폐기(dispose)해 버리는 선형 경제(Linear Economy)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직선 구조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각종 자원을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인식을 심어 결국 자원 고갈과 기후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란 말 그대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자원의 활용이 순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선형은 산업화의 산물이지만 순환은 자연에서 온 원리입니다.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만약 버려지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새롭게 활용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순환 경제 구조는 재생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추출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제품의 교체 주기를 늘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의 양이 감소되어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선순환 구조를 가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이며 기후 위기 대처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란 용어가 화제가 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는데, 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경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생산자, 가정과 본당에서 자원 순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5가지 활동을 5R이라 표현하는데 ‘구매 전 다시 생각하고(Rethink)’,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버릴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Reuse)’,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고(Repair)’,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자(Recycle)’는 의미로 녹색 소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것, 바로 생태적 삶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사고방식이 우리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틀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교육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교육적 노력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15항)

말씀 따라 잡기

생명의 빵, 요한 6장 예수 그리스도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뜻할까? 오천 명을 먹이신 표징(요한 6,1-15)은 ‘생명의 빵’ 담화문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인 “생명의 빵”(요한 6,22-59)이심을 전해준다.

오천 명을 먹이신 표징은 “파스카가 가까운 때”(요한 6,4)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파스카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파스카’는 이집트 탈출과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일이다.(탈출 16장) 예수님은 광야와 푸른 풀밭(요한 6,10), 만나와 오천 명이 먹고 남은 빵이 열두 광주리가 되는 표징(요한 6,13)의 대조를 통해 당신께서 ‘새로운 파스카의 빵’이심을 계시하신다. 또한 양떼에게 목초를 제공하는 메시아적 목자로서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운 잔치를 보여주신다. 그러나 군중은 표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상적이며 정치적인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을 원하여 찾아왔다.(요한 6,15.26) 예수님은 그 시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의 외적인 표지인 “썩어 없어질 양식”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하고 촉구하신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약속된 양식이지만(요한 6,32)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요한 6,29.35)만이 얻을 수 있는 빵이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요한 6,33-35.48) 하고 계시하지만,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한 6,42)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요한 6,33)으로 믿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요한 6,52-59)라고 하시는 성체 성사론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믿음은 삶의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지만(요한 6,68), 불신자들에게는 “듣기에 거북한 말씀”(요한 6,60)이 되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분리시킨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갈라 2,20)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친교와 나눔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먹고 있는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빵’(요한 6,49-51)인지.... **궤단**

말씀 맞히기 Q & A

1. 6장에서 “생명의 빵”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오니까?
2. ‘하느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생명의 빵’에 대한 설명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6월 24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6월 26일 연중 제13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④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다

12월 8일 금요일

대성당에서 침례(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를 성대히 지냈다. 나는 거기서 장엄미사를 지냈다.

12월 12일 화요일

홍콩으로부터 크렘프(Krempff, 慶元善) 신부가 대구에 도착했다.

12월 13일 수요일

크렘프 신부가 다시 떠났다.

12월 15일 금요일

올해에도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뮈텔 주교로부터 교세 통계표를 받았다. 우리 새 교구의 가톨릭 신자 수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충청도의 5개 본당을 포함해서 26,004명이다. 5개 본당을 제외하면 24,694명이다.

12월 17일 일요일

나의 본명 침례를 계기로 교우들이 강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했다(50원).

12월 21일 목요일

페네 신부가 홍콩에서 편지를 보냈다. 의사는 그가 폐병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주의를 하고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병의 악화를 막고, 또 현재의 병세도 호전될 것이라고 한다.

12월 23일 토요일

마라발 신부가 지난여름 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 왔다. 일종의 피정인데, 그는 피정 동안 숙고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일 그를 위해 미사를 드리겠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와 같이 기도 하고, 또 가장 너그러운 조치를 취하려고 결심한 뮈텔 주교도 모든 경과를 잘 알게 될 것이다.

12월 24일 일요일

우리의 시설이 정말로 너무 불안정하다. 다음 피정을 위한 장소가 전혀 없고, 또 서 아오스딩[徐相燾]이 장래의 주교관 대지증서를 정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 나는 일본인 건축 청부업자와 55간의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 건물은 길이 21m에 넓이 9m, 비용은 2,000원이다. 공사는 성당의 북쪽에서 시작된다. 이 건물에는 당가(當家), 피정을 위한 공동실, 손님 방 2개, 그리고 평상시를 위한 작은 식당이 있게 될 것이다. 후일 이 건물은 주교관 부지로 이전되고, 또 벽토(壁土)를 벽돌로 바꾸어 오로지 가톨릭 청년회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20평의 아주 넓은 방에서 회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루카 1,7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3. 사목적 전망 ⑧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꾸짖는 태도는 자녀 행동의 심각성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녀의 낙담과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적 가치관을 배우는 첫 학교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고쳐서 우리 공동의 집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신앙 전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268-290항)

제10차 세계가정대회

| 주제 | “가정의 사랑: 성덕의 소명이자 길”

로마에서는 2021년 3월 19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의 폐막을 기념하며, 제10차 세계가정대회가 **6월 22일(수) ~ 26일(주일)** 동안 개최됩니다.

교황님께서 “다중심적이고 광범위한” 세계가정대회를 말씀 하신 것에 따라 우리 교구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참조하시어 거룩한 가정대회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합리적인 식재료 구입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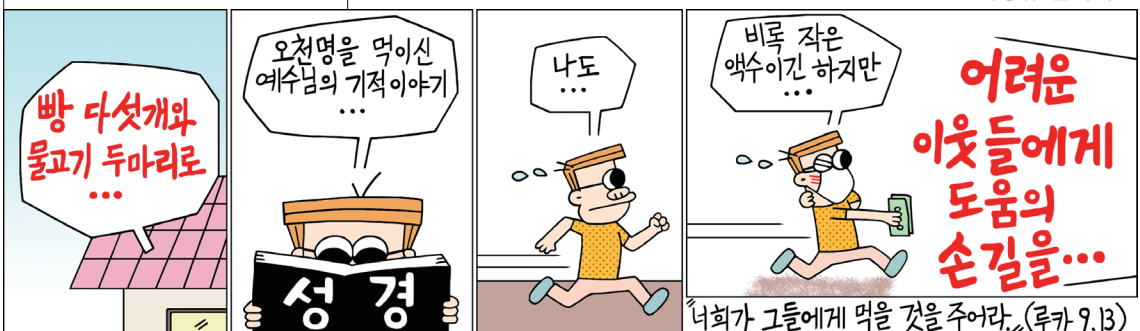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75호 정답

1. ‘파견된 이’ 2.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3.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4. ④

큰 기적도 작은 나눔에서부터

박성규 엘리지오



⑥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20일(월) 11:00 범어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6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0일(월) 11:00 계산성당		6월 22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5일(토) 11:00 순례자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청주 예수 고난 봉쇄 수녀원

문의: (043)295-5940

cumjesupassio@gmail.com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6.21(화)~22(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젊은이 여름 쉼 피정

일자: 8.13(토)~15(월) 2박 3일

장소: 평창 라베르나 기도의 집

대상: 35세이하 미혼여성 / 회비: 6만원

주최: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문의: (010)5715-170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2018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10

대상: 58세 이하 남·여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일자: 7.22(금)~7.24(일)

장소: 경주 코모도 호텔

주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접수: 6.22(수) 12:00~6.28(화) 17:00

신청: http://www.focolare.or.kr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자: 6.20(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509-9748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자: 7.10, 7.14, 7.24 (매주 주일)

시간: 9:3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 집)

문의: (054)954-309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9차: 7.22(금)~24(일)

390차: 8.12(금)~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현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교구 외 | 기타 알림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자: 7.16(토)~17(일) 1박 2일

대상: 좋은 학교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접수: 7.5(화) 10:00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회비: 인당 80,000원 (입학안내 겸함)

장소: 학교 / 문의: (043)260-5076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출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힐스피부과

색소·에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 (요셉)

☎ (053) 431-3377
대구 2, 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암병원 3층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용로 142 (이마트 갈매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파크골프

국산채, 수입산, 혼마4스타 초보자 무료레슨

★ **인원매트** 총판 ★ **한국인원매트** ★ **소형가전**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1층 239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정우(알베르토) 신부
2018년 6월 20일
- 서정도(벨라도) 신부
1964년 6월 21일
- 노기남(바오로) 주교
1984년 6월 25일

교구 | 대리구 알림

6월 예비신학교 모임 안내

일시: 6.26(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고3, 대학, 일반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7.8(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청 회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근무기간: 1년 4개월(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6.22(수) 17:00 방문 또는 우편
자격: pc사용가능자(엑셀)
제출: 교구 회계과, 250-3013

교구청 관리과 경력직 직원 채용

자격: 부동산 관련 업무 유경험자

서류: 교구 홈페이지 확인
마감: 6.28(화) 15:00 방문접수
제출: 교구 관리과, 250-3031

교구청 경비 직원 채용

자격: 만 55세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6.28(화) 15:00
제출: 교구 관리과, 250-3031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청소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분
(20~55세, 월 1~2회 활동 가능자)
문의: 교구 교정사목부, 636-8916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현국(프란치스코),
임차주(젼마), 이혜경(실비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설명회: 7.2(토) 14:00
여름 진학캠프: 8.6(토)~7(일)
대상: 현재 초6~중2
문의: (054)338-053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연필초상화, 난타, 고전무용, 장구,
캘리그래피, 사군자문인화, 우쿨렐레,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사범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2022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6.27(월)~7.6(수)
모집: 일반, 특수 대학원
문의: (일반)850-3581~3
(특수)660-5253~4
<http://www.cu.ac.kr>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황혼 속으로-아름답게 나이 들기:
6.22(매주 수 6주) 14:00~16:00
영화 피정: 7.2(매월 첫 토 14:00~17:00)
신앙코칭 북테라피: 사전예약, 개인면담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글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일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마영로 46 [신암동 214-4] 2층 ☎ 053-954-7582

대구연세인고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 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익두(아오스틴), 배삼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안역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053-255-2211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